



청개구리의 항변

오늘은 민족 복음화를 위한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 세상이 복음화되도록 노력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얼마 전 ‘울지마 톤즈’라는 KBS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태석 신부가 될 수 없고 더더욱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처럼 살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 노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역량에 맞는 삶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남긴 유언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효·불효를 따지지 않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삶의 중심이고 희망이시므로 이분께서 돌아가시기 전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인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 극변까지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변화되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유언이나 지상명령을 지키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마다 수제신자가 줄어 미사참례수가 30%를 넘지 못하는가 하면 예비자는 물론이고 수도자 성직자 성소가 고갈되어 어떤 수도원은 몇 년째 입회자 제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화는 화려한 구호의 외침이나 거대한 계획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동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사랑이 담긴 진정성이나 신자들의 향기로운 삶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돈 버는 게 재밌고 희생보다 지배하는 갑질의 삶으로 욕구충족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 세상살이가 훨씬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데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물려준 신앙이 생각나겠습니까. 더구나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결과를 손에 잡을 수도 없는데 주일미사나 안 빠지고 적당히 하면 되지 귀찮게 뭐?

비가 그친 우포늪에 연잎이 무성하고 그 위를 기어다니는 청개구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가 지은 동화인지는 몰라도 죄 없는 청개구리는 세기를 거슬러 억울한 욕을 먹는데 그 청개구리가 우리에게 뭐랄까?

“야! 배은망덕한 인간 녀름들아! 니들이 효를 알아?”

진정한 용기

1980년대 군인 시절 하던 우스개입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여서 자신들 부하가 더 용감하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먼저, 육군 참모총장이 육군 이등병을 불러서 달려오는 탱크를 맨몸으로 막으라고 했습니다. 용감하게 뛰어가서 탱크를 막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별거 아니라는 듯 공군 이등병을 불러서 낙하산 없이 높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때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 이등병을 불러서 맨몸으로 물속의 잠수함을 막으라고 하였습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아는 해군 이등병이 참모총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나 하세요.” 그랬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이등병 어깨를 두드리며 “보세요. 새까만 쫄따구가 참모총장에게 덤벼들다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누가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지시나, 사회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의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뒷감당이 잘 안 됩니다. 옛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이나 사회에 맞서는 것이 ‘날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용과 진정한 용기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분별없이윗사람에게 덤벼들고, 깊은 생각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자신과 파벌의 작은 이익에 눈이 가려져 큰일을 방해하면서, 정의와 용기라는 거짓 된 이름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누군가 부서지면서도 때리는 정에 맞서고, 깨어지면서도 바위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그 진정한 용기에 감사드리며, 분별 있는 판단력을 주시도록 은총을 구합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주일 진례

- 입 당 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본 기 도**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이사 21-5
- 화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제 2 독 서** 로마 10,9-18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 음** 마태 28,16-20
-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고광주 에스더 • 소설가

종교가 없었던 친구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다. 그녀의 동생이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걸 알게 되었다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생은 여태 살면서 이렇게 뭘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곳만은 간절히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 동생이 남편 몰래 아이 두 명까지 함께 데리고 일주일에 네 번이나 그곳에 가는 것을 알고는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친구 동생은 성경을 보여 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기는 듯했다. 조카 방에 숨겨둔 그들의 성경책까지 발견한 친구는 제부에게도 알려 의논하려 했지만, 동생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남편에게 먼저 알린 친구를 원망했다. 친구는 그 말에 처음부터 뿔뿔하게 말을 하고 갈 수는 없었냐고, 자신도 잘못된 길이란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냐며 크게 싸웠다고 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쏟아졌을 것이다.

친구는 밤새 울며 빌었다고 했다. ‘동생을 돌려주세요, 제발!’ 언젠가 지인에게 배운 화살기도를 알려주었더니 친구는 틈나는 대로 화살기도를 하느님께 올렸단다. 그리고 친구는 미사에 참여해 하느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도 했고, 친구의 지인이 성당으로 이끌어 미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동생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애쓰는 그녀가 대단해 보였다. 동생도 친구에게 너무 모진 말을 해서 후회하고 있었고, 공부란 측면만을 보고 접근했는데 자신의 언니가 극성스레 걱정한다는 것이었다.

친구 동생은 일상에 지쳐 있었던 것 같다. 힘들어 빠져나가고 싶은 그 현실의 틈새를 이단이 발견하고 유혹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고라도 가족을 반목하게 하고 상식에 어긋난 생각을 하게 하고,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서 사랑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 리가 없다. 매일 가던 동생의 집에 가지 못하고 조카들을 못 보니 그 친구도 다시 타들어 가는 심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친구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도 반성을 많이 했단다. 동생이 그 교회와 관계를 끊을 때까지 인내하며, 비신자인 그녀가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동생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보게 되었다. 고된 시간은 흘러갔고 친구 지인의 덕분으로 동생은 수녀님께 말씀도 듣고 심리상담도 받으며 친구와 다시 화해한 후 더 돈독해진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동생이 새로 다니기 시작한 문화센터에서 신천지 회원을 만나게 되었다. 동생 왈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보다 우리 언니가 더 무서워요. 절대 거기는 가지 않아요!”라고 했단다.

비록 신자는 아닐지라도 간절히 기도하여 평화를 찾은 그 가족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친구가 지난 성탄에 세례를 받았다.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2

EBS 학교의 발견 2부, 아인슈타인, 천국에서의 1년

나중에 우리 민족의 자산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학교 선생들의 미움을 받고 벌 받던 아이들,
도망치고 쫓겨났던 아이들이다.
하지만 더러는 무언의 반항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고 몰락에 이르기도 한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겠는가?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밑에서)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어린 시절 개신교 수도원 신학교의 엄격한 규율을 못 견디고 탈출을 시도하다 퇴학당합니다. 자신의 꿈과 삶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대했던 학교를 거부한 대가는 낙오자, 문제아라는 꼬리표였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문제아로 찍혀 퇴학당합니다. 학교생활이 힘들어 도망갈 궁리를 하던 그에게 학교가 먼저 구원(?)의 손길을 건넨 겁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컸지만, 공부를 강요당하는 것은 끔찍이도 싫었던 아인슈타인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자 스위스 취리히로 향합니다. 공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다녔던 아라우 주립학교는 이전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의 군대식 학교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빠르게 적응한 그는 성적이 뛰어났으며 성실성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며, 정답을 주입하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기를 유도하는 학교,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훗날 이 학교에서의 1년을 천국에서의 1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범생이가 되지 못했던 그는 이제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향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루카 15:11-32)

아버지는 범생이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아들은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았으며,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제 아들은 모범생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자유롭게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착하다'라는 말로, 진짜 착한 아이가 아닌 '내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려 합니다. '아

이고 착해라' 당근으로,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채찍으로,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틀에 가둡니다. 헤세와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라틴어와 거짓말뿐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녀는 착하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또는 혼나지 않기 위해, 말 잘 듣는 ‘척’을 합니다. 부모가 부과하는 의무는 아이를 자유로운 모범생이 아닌, 억압당한 범생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억압을 배운 아이는 억압하며 사는 어른이 되고, 자유와 사랑을 배운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주교님 말씀) 물론, 억압을 겪었음에도 사랑을 사시는 훌륭한 멋진 분도 많습니다.

교회, 하느님의 종교

교회란 나에게 의무를 지우는 존재이고 내가 가는 길을 정하는 데 방향을 부여하는 존재이다.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는 인간의 주체성이 그 독자적인 본질에서 이 주체성에 규범을 주는 하나의 객관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인격적인 주체의 가능성 속에서 그 주체성에 대해서 규범을 주는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행위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느님의 종교라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에 대해서 권위적인 형태의 교회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호소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말하자면 자기의 껍질에서 불러내는 하느님의 종교일 수 있다. (칼 라너,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도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로도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형을 유지하고 신자를 지켜내는 게 아닌 하느님 구원사업을 진짜 목적으로 한다면, 신자는 구원의 방향 제시를 의무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미사 참례가 교회법적으로는 분명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본분을 분명히 해주는 의미이지, 결코 의무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분명한 교회성을 보여준다면 신자들은 교회가 하는 말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신자는, 그저 껍데기 의무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깨고 나와, 자신의 온 존재를 걸고 하느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자유인이라 인식하고, 자유인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참신앙은, 그리고 구원의 길은, 바로 그런 자유에서 출발합니다.

*“...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교회법 제1752조, 마지막 조항)*



교구장 동정

성경잔치 파견미사

일시: 10월 20일(주일)
장소: 창원문성체육관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가 연수

일시: 10월 24일(목)~26일(토)
장소: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교리교사의 날 미사

일시: 10월 27일(주일)
장소: 성지여고

교구/본당

사무장 연수

일시: 10월 22일(화)~24일(목) 2박3일
장소: 광주대교구 성지

소공동체장 연수 - 거제지구

일시: 10월 24일(목) 13:00
장소: 고현성당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제32회 교리교사의 날

일시: 10월 27일(주일)
장소: 성지여고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3

진주지구 정찬문화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시: 10월 25일(금) 19:30
장소: 진주교육대학교 대강당
지휘: 이승엽, 반주: 윤정은
*전 좌석 무료 입장입니다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10월 27일(주일) 10:30
장소: 가음동성당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13기 어머니학교

일시: 11월 9일(토)~10일(주일)
장소: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2019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다락방) 전국대피정 '이 빛나는 길'(메세지 347번)

일시: 10월 21일(월) 09:00~17:00
장소: 남천성당 051·623·5428
주관: 마리아사제운동

부산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봉사회
참가신청: 각 본당봉사자, 10월 13일(주일)까지
준비물: 미사, 묵주, 합본 (*피정전 9일기도 권고)
문의: 010·9399·5454
* 07:00 차량출발 진주역 / 마산역 / 창원만남의 광장
(회비: 1만 원)

교구 전례꽃꽂이회 피정

일시: 10월 22일(화) 10:30
장소: 명례성지
문의: 담당자 010·9841·8191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10월 23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성소육성회 정기총회

일시: 10월 27일(주일)
장소: 교구청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수도회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시: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기 타

우울증 극복을 위한 집단상담 참가자 모집

강사: 권창현 신부(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 가톨릭 상담심리 전문가)
시간: 10월 23일(수) 08:30~20:30
장소: 의령성당 강당
참가비: 2만 원(식대, 검사비 무료)
신청: 선착순 10명, 055·573·470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1월 1일~3일, 11월 5일~8일, 11월 12일~14일, 11월 21일~24일, 12월 1일~4일, 12월 6일~8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제주 성지 순례 3일(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11월 5일~7일, 12월 17일~19일, 1월 3일~5일
장소: 제주성지 7곳(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순례: 2020년 3월 2일 그리스·터키 12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원 음악학과 전기 신입생모집

원서접수: 10월 28일(월)~11월 8일(금)
전공: 성악, 피아노, 관현악, 실용음악 작곡
지휘, 오르간, 피아노반주, 문화예술경영
문의: 053·850·3803

대구가톨릭대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마감: 11월 8일(금) / 월, 목 야간 수업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50% 장학금 지급(모든 학생)
문의: 053·660·5252~4, 010·6563·0409

한티아고 가는 길(성지순례길)

일시: 11월 14일(목) 09:50~17:30 1일, 2만 원
11월 21일(목) 10:30~22일(금)15:30 1박2일, 6만5천 원
12월 10일(화) 09:50~17:30 1일, 2만 원
12월 20일(금) 10:30~21일(토)15:30 1박2일, 6만5천 원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폼겨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10월 26일</td> <td>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td> <td>12일</td> <td>449 만원</td> </tr> <tr> <td>10월 28일</td> <td>터키, 그리스 순례</td> <td>13일</td> <td>399 만원</td> </tr> <tr> <td>11월 11일</td> <td>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td> <td>19일</td> <td></td> </tr> </table>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본도여행사 02.852.8525	10월 26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일	449 만원	10월 28일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 만원	11월 11일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초음파 배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진해시니어클럽 자연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10월 26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일	449 만원												
10월 28일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 만원												
11월 11일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성탄 특선 이스라엘 성지순례(평화순례여행사)

일시: 12월 21일(토)~27일(금) 6박7일
순례지: 나자렛, 갈릴래아, 예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문의: 02·723·3371~4, 010·5385·0565

2020년 살레시오여름신앙학교

접수: 20년 1월 2일(목)9:00~ (선착순 250명 마감)
대상: 중고등부4차, 초등부4차
일정: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2·373·0942, 010·7412·0942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송구영신 피정

일시: 2019년 12월 31일(화) 16:00~2020년 1월 1일(수)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신년 대축일 미사
입금계좌: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신청: 055·221·1891~2, 선착순 마감

마산교구 평신도 신앙대학 제27기 모집

지원자격: 영세한 지 2년 이상 된 평신도로 본당 주임 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만 65세 이하)
교육기간: 2년 과정(1월과 8월은 방학)
매월 첫(토) 13:30~(주일) 16:00 1박2일
교육과정
2020년도: 교부학(최원호 교수), 교회법(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그리스도론(강철현 신부)
사회교리(박창균 신부), 성사와 전례(김정우 신부), 신약성경(정연우 신부)
2021년도: 교회론, 구약성경, 성령론·마리아론, 영성신학, 윤리신학, 철학
졸업특혜: 신앙대학 졸업장,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교육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모집인원: 60명(선착순) 지원마감: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개강일: 2020년 2월 1일(토)13:00(오리엔테이션 및 입학미사)
지원방법: 본당사무실에 비치된 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등록비: 교육관 숙박비 선택(2인실: 54만 원, 4인실: 44만 원)
등록안내: 접수마감 후 자택으로 '입학안내서신' 발송
보내실곳: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일일낚피정

주제: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11,26)
강사: 서정혁(프란치스코)신부 (청주교구·성체의 기적)
미사: 최재상(마티아)신부,
서정혁(프란치스코)신부 공동집전
일시: 10월 28일(월) 13:00~17:30
장소: 반송성당
문의: 010·9421·3377, 010·2585·8919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0월 21일(월) 19:00	월남동성당	어머니의 사랑	신숙자 수녀(도미니코, 전국 성령 부회장)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10월 21일(월) 19:00	반송성당	축복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리라	김완식(요셉, 선교사)	정중규 신부(클라로)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내용	문의
한국외방선교회	해외 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오르탄 10일 11/18, 12/3 (289만원) ◆ 이스라엘 9일 1/15 (299만원) ◆ 이태리 9일 11/7 (279만원) 1/21 구정(299만원) ◆ 성모발현지 13일 10/28(399만원), 2/3 (38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진영삼성안과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타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쌍용자동차 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 태도건 다나엘 010.2232.1456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	--	---	--

세레 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네딕토 15세의 교황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 (Maximum Illud, 1919.11.30.)”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저는 온 교회가 2019년 10월 한 달을 선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때로 지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전교 주일 담화의 제목은 10월 특별 전교의 달 주제와 동일하게, “세레 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특별 전교의 달 거행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니는 선교 차원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세레를 통하여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느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맺는 친교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명은 팔려고 내놓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개종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 주고 전달하며 선포할 보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사물의 올바른 차원을 알게 해 줍니다. 희망은 우리가 동참하는 하느님 생명의 영원한 지평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게 해 줍니다. 성사들과 형제애를 통하여 미리 맛보는 그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게 합니다(미카 5,3; 마태 28,19; 사도 1,8; 로마 10,18 참조). 누리 끝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나가는 교회는 지속적이고 항구한 선교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없이 열린 마음과 자비로운 나아감이 참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성인들과 신자

들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다그침입니다.(2코린 5,14-21 참조) 내어 주고 희생하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명령은 우리에게 직접 와 닿습니다. 저는 언제나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언제나 선교사입니다. 세레 받은 모든 이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매료되며 또 다른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 주어 생명을 낳는 관계를 맺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이도 쓸모없고 무의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열매이기에 모두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의 부성과 교회의 모성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 명령은 세례성사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세상의 화해를 위하여 일하여라”(요한 20,19-23; 마태 28,16-20 참조) 이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존엄을 인식하며,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선교사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레의 은총으로 교회의 사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2019년 10월 20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